

현대중국어 허사 ‘吧’의 양태성

진 준 화*

<目次>

I. 문제제기	1. 양태(modality)와 어기(語氣)
II. ‘吧’의 의미범주에 대한 기존논의	2. ‘吧’의 양태 특성 및 분석
III. ‘吧’의 의미범주 특성	IV. 결어

I. 문제제기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담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달하는 의미정보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화자는 발화 문장에 자신의 주관적 관점과 태도도 함께 담아 전달한다.

- ① a. 快下来!
- b. 快下来吧!
- c. 你听错了。
- d. 你听错了吧。
- ② a. 这个道理你们明白吧?
- b. 你已经了解它的意义了吧。

위의 예 ①과 ②의 문장에 내제 되어있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는 무엇일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 조교수

까? ①a는 ‘명령’을, b는 ‘재촉’을, c는 ‘진술’을, d는 ‘추측’을, ②의 a와 b는 모두 ‘추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의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까? 일반적으로 현재 중국어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기(語氣)’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양태(modality)’¹⁾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위의 예문의 ‘吧’를 ‘어기조사’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에 대한 물음에 그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吧’의 의미범주에 대한 기존 논의

최초의 중국어법을 다룬 馬建忠의 《馬氏文通》이 문장 끝에 사용된 吧를 ‘助字’라 칭하고, 그가 전달할 수 있는 어기는 ‘信’과 ‘疑’라는 ‘확신과 의혹’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한 이래로,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吧가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呂叔湘(1942)의 어기에 대한 논의를 보면, ‘어기는 개념의 내용이 동일한 문장에서 사용목적의 차이에 따라 생겨난 구분을 말하며, 어조와 어기사로 나타낸다.’고 정의 하면서, 吧를 어기조사로 보았다. 이러한 논리는 朱德熙(1982), 陸儉明(1984), 胡明揚(1988)으로 이어지면서 그 논의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들 역시 문장 끝에 사용된 吧를 문장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보았다.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논저가 吧의 의미범주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문장의 어기를 담당하는 어기조사라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저들에서 나타나는 어기라는 정의와 그에 따른 어기조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양태(modality)’라는 개념과의 혼용으로 인해 吧가 가지고 있는 문장內 의미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Ⅲ장을 참고바람.

기능에 부합되는 의미범주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에 들어서 몇몇 학자들이 吧가 갖는 문장내 의미기능에 부합하는 吧의 의미범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시도가 있었는데, 徐晶凝(2003), 屈承熹·李彬(2004), 周士宏·岑运强(2008) 등이 바로 그렇다. 이들은 ‘양태(modality)’ 개념을 吧에 접목시켜 그 의미범주 문제를 구체화 시켰으나, 여전히 전통적으로 ‘어기’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양태 개념과 접목시켜 그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 중에서 屈承熹·李彬(2004)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吧가 갖는 의미 속성과 의미범주 문제를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및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통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吧의 의미 속성을 ‘양태’라고 보고 이는 ‘양태허사’²⁾의 의미범주를 갖는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본고 역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전통적인 ‘어기’의 개념과 용어를 무비판적이고도 불분명하게 활용한 기존의 논저에서는 엿볼 수 없는, 吧가 갖는 의미 속성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범주 확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어에서 ‘어기’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어기조사가 아닌 양태허사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의미론적 개념인 양태와 화용론적 개념인 ‘담화표지와 관련성 이론’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

양태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범주에 속한다. 양태가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 등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추측]’과 같이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吧는 당연히 양태 범주 안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지금까지도 중국어법학계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기 개념 방식에서 吧가 논의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 장에서부터 吧의 의미범주 특성을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양태성이란 의미론적 입장에 입각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情态虚词

Ⅲ. ‘ㄹ’의 의미범주 특성

앞의 II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어어법학계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허사 ‘ㄹ’을 대체적으로 문장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장의 어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문장 말미에 사용된 허사 ㄹ가 과연 문장의 어기를 담당하는 어기조사로서의 의미범주를 갖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범주로 이해해야 하는지 본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양태(modality)³⁾와 어기(語氣)

어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와 관련이 깊은 양태의 개념과 그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 양태(modality)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Lyons(1977)는 ‘양태는 문장에서 명제 이외의 수식성분이며,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이 문법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 정의하였고, Palmer(1986)는 ‘양태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관점을 표현하는 문법형식이 문법화된 것’이라 하였으며, Bybee & Fleischman(1995)은 ‘양태는 의미범주로서 명제가 표현하지 못한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彭利贞(2005)는 ‘양태를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나 사건의 현실성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으로 양태(modality)는 ‘문장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 등을 나타내는 범언어적 의미범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양태를 논하고자 할 때 항상 이와 의미적으로 상관관계가 깊은

3) 언어학의 의미론적 개념인 ‘modality’를 ‘양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본고는 언어학사전적으로 ‘발화 내용과 현실의 관계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되는 ‘양태’라는 용어를 그 번역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개념인 ‘서법(mood)’⁴⁾를 자주 언급하곤 한다. 서법은 Jespersen(1924) 이래 인구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굴절 등의 장치를 통해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 등을 실현하는 형태·통사범주로 인식되고 있다.⁵⁾ 양태를 논의함에 있어 항상 그와 대응되는 서법(mood)의 개념과의 충돌 및 상충을 피할 길이 없어 학자들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⁶⁾, 서법은 인구어를 대상으로 논의되어 저온 개념으로 ‘발화행위(speech act)’⁷⁾와 깊은 관련이 있고, 양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명령과 가정 등의 특정한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⁸⁾을 지닌 발화는 그 차이가 문장 주동사의 굴절형으로 문법화 되는 데 이러한 동사 굴절형의 차이가 바로 서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Lyons, 1977).⁹⁾ 즉, 서법은 화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굴절형이지만, 양태는 화행과 관계가 없고 비굴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비인구어인 중국어에서의 서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까? 양태는 범언어적 의미범주로 중국어에서도 ‘부사, 동사, 형용사, 조동

4) 언어학 의미론적 개념인 ‘mood’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서법’이라는 번역용어를 사용하기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5) 임동훈(2008)에서 재인용.

6) 즉, 양태를 서법의 상위 범주로 이해하는 부류(한동완(1991), 신상순(1997), 조일영(1994), 박병선(2000)), 양태를 서법의 하위 범주로 이해하는 부류(John Lyons(1968), 서정수(1994)), 양태와 서법을 서로 분리시켜 이들 모두를 문법범주 혹은 의미범주로 이해하는 부류(장경희(1985), 이남순(1995), 김민수(1982)), 양태는 의미범주로 서법은 문법범주로 이해하는 부류(Joan Bybee & Suzann Fleischman(1995)) 등 양태와 서법에 관해 매우 많은 혼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이효정, 2004).

7) Austin(1955)은 발화행위를 ‘발화행위(locutionary act)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의 3가지 하위 행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문장유형인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은 각각 진술, 질문, 명령의 발화수반행위를 갖는 다고 하였다. 이를 줄여 ‘화행’이라고도 한다.

8) Austin(1955)가 제시한 발화행위(speech act)중 발화수반력은 ‘청자가 그 발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중심요소로, ‘의문문은 질문, 명령문은 명령, 진술문은 진술’의 발화수반력을 갖게 된다.

9) 임동훈(2008)에서 재인용.

사, 강제, 억양, 휴지’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¹⁰⁾ 그러나 중국어에는 동사의 굴절 등이 없어 이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을 만들어 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구에어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서법은 이전에 인구에어에 바탕을 두고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이라는 하위분류 체계를 사용해 논의되어져 왔으나, 70년대 이후 비인구에어에서 나타나는 서법과 양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敍實法(realis)’과 ‘敍想法(irrealis)’ 등의 방법으로 그 논의를 대체하고 있다(임동훈, 2008). 이러한 비인구에어의 서법 논의 체계인 ‘서실법(realis), 서상법(irrealis)’의 각도로 본다면 중국어에서도 서법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실법’은 사건이 실현된(actualized)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묘사하는 것을 말하며, ‘서상법’은 사건 자체를 온전히 사고(thought)의 영역에서 다루어 생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임동훈, 2008).¹¹⁾ 이로 볼 때 서법은 서실법과 서상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서실법은 그 의미를 기반으로 볼 때 ‘직설법’과 대응된다 할 수 있으며, 서상법 역시 그 의미를 기반으로 본다면, ‘가정법, 명령법’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어에 적용시켜 본다면, 중국어에서의 서법은 화행과 관련성이 깊은 문장유형을 서실법과 서상법의 분류체계에 대입시켜 도출된 함수 값은 볼 때, ‘진술문, 의문문, 감탄문’은 ‘서실법’에, ‘명령문’은 ‘서상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인구에어와 달리 가정법이란 문법적 장치가 없지만, 이와 기능이 유사한 ‘如果…的话’ 등과 같은 문법적 장치로 서상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존재하는 서법의 개념을 다음의 도식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10) 彭利贞, 《现代汉语情态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11) mithun(1999)의 내용을 임동훈(2008)에서 인용하였고, 이를 본고에서 재인용하였음.

〈표 1〉 중국어 서법 개념

mood	realis	진술문, 의문문, 감탄문
	irrealis	명령문
		가정표현의 문법적 장치

이에 본고는 중국어에서 서법의 개념을 화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서실 법이나 서상법 등의 발화수반력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청자 상관적’ 개념으로, 양태는 화행과 무관하게 문장의 명제와 관련된 개념으로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 등의 ‘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 서법을 청자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청자상관적)를 문법적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국어 문장들이 이러한 서법을 실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③ a. 他是学生。
 b. 这部电影真有意思啊!
 c. 这不是你的?
 d. 你注意听老师说!

예 ③의 ‘a, b, c, d’는 모두 서법이 실현된 문장이다. 즉, a와 b는 청자에게 설명을, c는 화자의 무지에 따른 청자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한 질문을, d는 청자에 대한 행동 강요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따져 볼 때 문장의 유형과 일치된다. 서법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를 기술하거나(서술문), 세계를 구성하는 발화행위를 만들어 내거나(의문문, 명령문), 세계의 전형적인 변화 양상을 근거로 가상의 사태를 점치는 일로 이해한다면,¹²⁾ 중국어에서 서법은 대체로 문장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이선영, 〈명제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43집, 2014, 310쪽.

그렇다면, 중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어기(語氣)’는 앞서 논의한 서법 및 양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현재까지 중국어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기관련 논의는 서양 이론인 서법(mood)과 양태(modality)의 개념을 혼용함과 동시에 이들을 근거로 마련된 전통적인 어기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자마다 또 문법 기술 마다 제시되는 의미의 개념이 각각 다르고 그마저도 모호하여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어에서 어기라는 표현은 1956년에 출판된 중학교 교과서인 《漢語》에서 그 처음 사용이 보이며, 이후 1980년대 초부터 나온 각종 어법저서에서 어기와 어기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김중호, 1988). 그 이전 《馬氏文通》 시기의 ‘助字’를 시작으로 ‘語助詞, 語氣詞, 助詞, 句終詞’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중국어법학계에서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어기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다면, 중국어에서 어기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혹은 저서마다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당시 양태라는 문법적 이론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양태라는 개념을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던 것일까?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조동사를 설명함에 있어 양태(modality) 개념을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¹³⁾ 이는 본고의 견해로 비추어 본다면 전통적으로 중국어법학계에서 이야기 하는 어기는 아마도 ‘서법(mood) 혹은 양태(modality)’¹⁴⁾로 이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기존 중국어법학자들의 ‘어기’에 대한 견해를 温锁林(2001)이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살펴보면,¹⁵⁾ 먼저 王力(1938)은 어기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억양과 허사 등을 들었다.

13) 중국어에서 조동사를 ‘能源动词’ 혹은 ‘情态动词’로 칭하기도 하는 이유이다.

14) 여기서 말하는 ‘서법(mood)’는 앞서 본고가 제시한 중국어의 ‘서법’ 개념이 아닌 인구어의 전통적인 ‘서법’ 개념을 의미한다.

15) “기존 중국어법학자들의 ‘어기’에 대한 논의”는 温锁林(2001)의 한국어 번역본인 박정구(2005)에서 재인용.

즉, ‘어기’를 ‘양태(modality)’의 개념으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呂叔湘(1942)은 어기를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인식하였는데, 하나는 ‘정과 반, 한정과 비한정, 허와 실’ 등의 구별을 가리키는 ‘어의(語意)’와 ‘말의 경중, 느낌과 급함’을 가리키는 ‘어세(語勢)’의 합으로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개념이 동일한 어구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라고 보았다. 즉, ‘어기’를 ‘서법(mood)+양태(modality)’로 본 것이다. 胡明揚(1981)은 ‘어기’를 ‘화자가 주의 사물 혹은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대해 갖는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태(modality)’의 개념으로 어기를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溫鎖林(2001)은 어기를 어법범주로 인식하고 ‘口氣’¹⁶⁾라는 의미범주와 구분하여 어기를 ‘서법(mood)’로 보았으며, 정명숙(2008)은 어기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 것을 보아 중국어의 어기를 ‘양태(modality)’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언어학자들 대다수가 ‘어기’를 논함에 있어 서양의 ‘mood’ 혹은 ‘modality’의 개념을 혼용하여 논함으로써 그 논리전개가 불분명해 정확히 어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어에서 존재하는 ‘어기’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본고는 앞의 논의에서 서법(mood)과 양태(modality)를 서로 다른 개념 범주로 이해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어에서 어기(語氣)는 문장전체 의미를 작용역으로 삼아 화행(speech act)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발화수반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어기는 문장 발화의 전체 의도와 의미에 대한 화행적 표지(문장유형)로 이해해야 하고, 양태는 문장내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 혹은 명제의 사실적 지위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 등으로 이해해야 타당할 것으로 본다.¹⁷⁾ 어기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양태와

16)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양태’와 같은 개념의 용어이다.

17) 박재연(2005)에서도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이고, 문장유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해 가지는 태도와 관련성이 깊다.’고 한 바 있다.

유사하나 양태와는 다르게 명제 자체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말을 듣고 있는 청자에 대한 심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기는 청자에게 ‘진술, 질문, 명령’ 등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¹⁸⁾이 작용하게 되므로 양태와는 다르다.

2. ‘吧’의 양태 특성 및 분석

먼저 다음의 문장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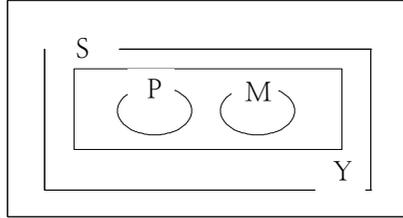
- ④ a. 快走!
b. 快走吧!
- ⑤ a. 我们互相帮助。
b. 我们互相帮助吧。

우리는 흔히 전통적으로 어기조사라고 부르는 ‘吧’가 문장의 어기를 담당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중국어에서의 ‘서법(mood)’과 ‘양태(modality)’를 정의한바 있는데, 어기는 문장 발화의 전체 의도와 의미에 대한 화행적 표지(문장유형)로 이해하였고,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범언어적 의미범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어기조사 없이도 문장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예 ④와 같이 명령문에 사용된 ‘吧’가 그렇다.

서양문법에서 차용된 ‘서법(mood)’의 개념을 그대로 ‘어기’로 받아들인다면 위 ④와 같은 현상에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중국어법학계에서 ‘어기’를 인구어의 ‘서법(mood)’ 개념으로 본다면 이는 곧 동사의 굴절로 통해 ‘직설/가정/명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吧’ 등은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설/가정/명령’ 등을 나타내는 주도적 역

18) Austin(1955)가 제시한 발화행위(speech act)중 발화수반력은 ‘청자가 그 발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중심요소로, ‘의문문은 질문, 명령문은 명령, 진술문은 진술’의 발화수반력을 갖게 된다.

할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위 예문 ④b와 ⑤b 같이 그렇지 못하다. 이들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 등을 나타내는 ‘양태(modality)’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¹⁹⁾ 위의 논의를 토대로 문장이 가지는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 = [P + M] \times Y]$$

(S: 문장, P: 명제, M: 양태, Y: 어기)

〈도식 1〉 중국어 문장의 의미구조

예 ④와 ⑤a의 문장은 문장 전체 의미를 작용역으로 화행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a:명령, b:서술’의 태도를 표시하는 발화수반력을 가진 어기는 존재하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인 양태는 존재하지 않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④와 ⑤의 b는 ‘吧’가 사용됨으로 인해 ‘a:가다, b:우리가 돕다’라는 명제에 대한 ‘a:[행위요구], b:[부탁]’이라는 화자의 태도인 양태가 존재하며, 이때도 역시 어기는 ‘a:명령, b:서술’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문장은 ‘[[명제+양태]×어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태를 단순히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감정’의 개념으로 언어에서 발현되는 모든 양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양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양

19) 중국어는 양태표현을 위해 주로 ‘초분절적 요소(강세와 억양), 어휘적 요소(형용사, 부사 등), 문법적 요소(조동사, 문말조사 등)’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본고의 논의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태(deontic modality)²⁰⁾로 나눌 수 있는데, 인식양태는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나타내고,²¹⁾ 의무양태는 화자나 화자이외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행위요구, 지시, 허가, 의무’등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이기갑, 2006). 즉,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는 ‘사실성(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sation)’의 관점에서 현실 세계와 가능 세계의 일치된 관계로 볼 수 있다(Huddleston & Pullum 2002, Saeed 2003).²²⁾ 따라서, 인식양태는 명제 자체의 성격에 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의무양태는 동작주가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⑥ a. 你的父亲没有出去吧? [+추측]
 b. 我现在这么说的都记录下来了吧? [+추측]
 c. 这个道理你们明白吧? [+추측]
- ⑦ a. 我想, 他们的认识至少是不大全面的吧. [+추측]
 b. 没办法那就只好换, 资金短缺那就借钱吧. [+권고]
 c. 中华民族的未来, 更多地思考环境问题吧. [+제시]
 d. 我们互相帮助吧. [+청구]
 e. 对不起, 麻烦你自己拿吧. [+행위요구]
 f. 既然你说非我去不可, 那我就去吧. [+강요]
 g. 我们一起去看这部电影怎么样? 好吧! [+동의]
 h. 你好好听听大家的意见吧. [+건의]
 i. 走吧! 走吧! [+재촉]

위의 예문 ⑥과 ⑦를 살펴보면 모두 문장 말미에 ‘吧’가 사용되어진 문

20) ‘행동양태’라고 칭하기도 한다.

21) Saeed(2003)과 Palmer(2001)은 인식양태를 ‘화자의 명제에 대한 믿음(commitment)의 정도를 표시하는 범주나 명제의 사실적 지위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범주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임동훈, 2008).

22) 임동훈(2008)은 인식양태를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 정도를 ‘가능성, 개연성, 추론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의무양태를 화자가 일정한 조건을 청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명령, 금지, 기원, 권유, 경고, 허락’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지금까지 중국어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장에서 ‘ㄹ’가 실행하는 문법적 기능은 문장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앞의 논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장은 명제와 양태의 결합 그리고 이들을 특정 지어줄 수 있는 어기(문장유형)의 총합이라 한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예 ⑥과 ⑦의 각각의 문장들은 모두 해당 명제와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감정의 성분인 양태가 결합된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예 ⑥과 ⑦의 각각의 문장에서 ㄹ의 역할은 어기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명제에 대한 ‘[+추측], [+강요], [+권고], [+동의], [+재촉], [+제시], [+행위요구]’ 등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조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⑥과 ⑦a의 ㄹ는 명제 자체의 성격에 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인식양태’로 사용된 예이고, 예 ⑦의 a를 제외한 b~i는 화자가 일정한 조건을 청자에게 부여하는 의무양태로 활용된 것을 보여준다. ⑦ ‘a’를 대표로 예로 들면, 이 문장은 ‘당신의 아버지가 나가다’라는 명제에 ‘[확인[추측]]’의 인식양태 의미를 갖는 양태조사 ‘ㄹ’가 결합된 것으로, 이때의 문장어기는 ‘서술’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ㄹ의 양태 특성

양태(modality)	인식양태 (epistemic modality)	[확인[추측]]
	의무양태 (denotic modality)	[행위요구]
		[권고]
		[제시]
		[청구]
		[강요]
		[동의]
		[건의]
		[재촉]

23) 예 ④와 ⑤는 진준화(2017)에서 재인용.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추측]]’의 의미기능을 갖는 ㅁ는 ‘인식양태’에 속하며, ‘[행위요구], [강요], [재촉], [권고], [제시], [동의], [건의]’ 등의 의미기능을 갖는 ㅁ는 ‘의무양태’에 속한다. 인식양태는 ‘화·청자 지향적 양태’로, 의무양태는 ‘청자 혹은 행위자 지향적 양태’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이 중에서 ㅁ가 가장 많은 사용률²⁵⁾을 차지하는 확인을 기반으로 한 추측([확인[추측]])의 의미기능을 갖는 ㅁ의 인식양태 특성에 대해 논하기 앞서 다음 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 ⑧ a. 这是你的吧?
b. 这不是你的?

예 ⑧의 a와 같이 ㅁ는 인식양태로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⑧a를 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인 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과 의문²⁶⁾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의문문은 어기(문자유형)이라는 문법 범주의 한 종류이고, ‘질문’은 발화수반력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충위를 달리한다(박재연, 2005). 우리가 의문문과 질문을 혼동하는 이유는 의문문 자체가 발화수반력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문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화자가 요구하는 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박재연, 2005). 따라서 ⑧a처럼 화자가 가지는 판단을 표현하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보기 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가해지는 문장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고, 이는 곧 문미에 쓰인 ‘ㅁ’가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⑧a가 진정한 의문의 표현을 전달하려면

24) Palmer(1979)에서 사용된 ‘담화 지향적(discourse-oriented)’이라는 용어를 박재연(2003)에서는 ‘화·청자 지향성’으로 사용한다. 있다.

25) ㅁ의 주된 의미기능으로는 확인을 기반으로 한 ‘[추측]’으로 그 사용빈도가 다른 의미기능에 비해 3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17)를 참조바람.

26) ‘의문’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진준화(2017)을 참고바람.

⑧b와 같이 그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확인[추측]]’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문미의 ‘吧’는 비록 상승어조를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나타 내는 의문문의 어기조사와 같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식양태로서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하는 기능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²⁷⁾ 즉, ⑧a는 ‘吧’를 사용하여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인[추측]]’의 인식양태를 나타낸 서술문으로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서술어기를 갖는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吧’는 확실성 결여²⁸⁾라는 화자의 지식 상태를 부각을 나타내며, ‘확인’을 위한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있는 양태조사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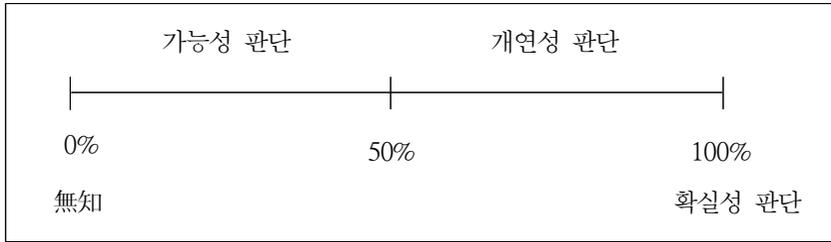
또 다른 예문하나를 더 보도록 하자.

- ⑨ a. 这个太高了吧。
b. 这个太高了。

박재연(2005)은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으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정보의 획득 방법(지각, 추론, 전언(hearsay)), 정보의 내면화 정도(이미 앎, 새로 앎),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기지가정, 미지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인식양태의 의미영역 중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이 의미 영역은 명제를 제시하는데 있어, 화자가 그 진실성을 얼마만큼 보장하는가를 가리키는 ‘화자의 앎의 척도(scale)’에 해당한다. 즉, ‘확실성 판단’은 화자가 사태의 진실성에 대하여 100%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개연성 판단’은 화자가 100%는 안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은 가진다는 의미이다. ‘가능성 판단’은 화자가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50%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재연, 2005).

27) ‘[확인[추측]]’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吧’는 화자의 정보 전달력 보다는 청자의 확인을 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화자의 무지로 인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진정한 의문문과는 다르다.

28) ‘확실성 결여’라는 용어는 임홍빈(1998)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도식 2〉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화자의 앞의 척도), 박재연(2005)

인식양태의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미영역도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술문이라 하더라도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양태 요소가 사용되면 그 문장은 적어도 그러한 요소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 비해서는 의문문과 가까운 성격을 띠 가능성이 크다(박재연, 2005). 즉, 예 ⑨에서 사용된 ㄹ가 바로 이러한 좋은 예이다. 예 ⑨a와 같이 조사 ㄹ가 진술문의 문미에 사용되어 의문문과 가까운 성격을 띠는 ‘개연성 판단’의 인식양태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 ⑨b는 일반 진술문이다. 그러나 a는 진술문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ㄹ’라는 양태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진술문의 일반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의문문화 하는 기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위 예문 중 ⑨a는 진술문이라 하더라도 청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청자에게서 명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장으로써 ‘ㄹ’로 인해 진술문도 의문문과 간접적인 상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우리가 ‘의문(疑問)’적 의도를 가진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e)’²⁹⁾이라 이해하는 것도 합리적일 듯하다. 다시 말해,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 중 ‘새로 앎’은 해당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가리

29) 박재연(2005)가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 본고에서 ㄹ가 사용되어진 문장 중 의문의 의미 성격을 가지는 문장을 역시 유사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키는데,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정보는 언제든지 새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수정될 여지를 갖는다(박재연, 2005). ⑨a에서 吧의 사용은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화자는 기본적으로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진술문적 의도를 가짐과 동시에 이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확인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의문문적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³⁰⁾

IV. 결어

지금까지 중국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동사(能, 会, 想, 可以 등)’를 위주로 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중국어에서 조동사를 ‘能愿動詞’ 혹은 ‘情態動詞’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조동사가 갖는 양태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본다면, 조동사의 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어기조사라고 부르는 ‘吧’역시 그가 갖는 양태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기조사 보다는 ‘양태조사’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면서도 명확할 것으로 본다.³¹⁾ 따라서 중국어에서 문장 명제에 대한 양태를 실현하는 성분으로는 실사에서는 ‘조동사’가, 허사로서는 소위 어기조사로 일컬어지는 ‘양태조사’가 주로 담당한다고 보여 진다.³²⁾

본고는 중국어에서 허사 ‘吧’를 문장의 어기를 표현하는 어기조사로서가

-
- 30) 반대로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吗’와 같은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你好吗?’와 같은 인사 표현 문장이 그렇다. 즉,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진술문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31) 장경희(2015)에서는 중국어의 조동사를 ‘양태조동사’로 칭하고 있다. 이는 조동사가 갖는 양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명한 명칭으로, 능원동사 혹은 정태동사라는 표현 보다는 의미범주인 양태와 통사범주인 조동사의 결합의 적절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볼 수 있겠다.
- 32) ‘조동사’이외에도 ‘부사(的确, 一定, 到底, 也许, 大概 등)’도 양태를 실현하는 표현이며, ‘가능보어구문’의 통사구조 역시 양태를 실현하는 주요 표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다른 지면을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

아니라 양태를 표현하는 양태조사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종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어에서 어기(語氣)는 문장전체 의미를 작용역으로 삼아 화행(speech act)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발화수반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여기는 문장 발화의 전체 의도와 의미에 대한 화행적 표지(문장유형)로 이해해야 하고, 양태(modality)는 문장내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 혹은 명제의 사실적 지위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 등으로 이해해야 타당할 것으로 본다.

(2) 문장의 의미구조는 ‘[S = [P + M]×Y] (S:문장, P:명제, M:양태, Y:어기)’로 이루어져 있다.

(3) 문말에 사용된 ‘ㄹ’은 해당 명제에 대한 ‘[추측], [강요], [권고], [동의], [재촉], [제시], [행위요구]’ 등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조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양태 체계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인식양태는 명제 자체의 성격에 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의무양태는 동작주가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확인[추측]]’의 의미기능을 갖는 ㄹ은 ‘인식양태’에 속하며, ‘[행위요구], [강요], [재촉], [권고], [제시], [동의], [건의]’ 등의 의미기능을 갖는 ㄹ은 ‘의무양태’에 속한다.

(5) 우리가 흔히 어기조사라고 부르는 ‘ㄹ’은 그가 갖는 양태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기조사 보다는 의미범주인 ‘양태조사’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본다.

본고의 논의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ㄹ의 의미범주문제에 대한 논의의 집중으로 인하여, ‘어기, 양태, 서법’ 등이 가지는 개념적 관련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하긴 하였지만,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토대로 중국어 전반에서 구현되는 ‘양태실현양상’³³⁾에

33) 문장 문미에 사용된 ‘呢, 了, 呗’ 등도 역시 양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의 지면을 통해 다시 논하도록 하자.

<References>

1.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 Press, 1955.
2. Bybee, J. & S. Fleischman.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1995.
3. Han, Jeongsuk & Jeong, Huisuk. Grammatical Constraints of Modality Representations Representing Guess. *Language* Vol.36, (2011).
4. Huddleston, R. &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2002.
5. Hu Mingyang. “Modal Meaning of Modal Particles”. *Chinese Language Learning Issue* 6, (1988).
6. Im, Hongbin. *In-depth study of Korean grammar III: Syntax and meaning of lexical category*. Taehaksa, 1988.
7. Im, Donghun. “Mood and Modality in Korean”. *Korean Semantics* Vol.26, (2008).
8. Jang, Gyeonghui. *A study on the modality of modern Korean language*. Top Press, 1985.
9. Jang, Gyeonghui.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Chinese Modalities”.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Vol.35, (2015).
10. Jeong, Myeongsuk. “A Study on the YuQi Types of Modern Chines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39, (2008).
11. Jespersen, O. *The Philosophy of Grammar*. Allen and Unwin Ltd., 1924.

12. Jin, Joonhwa. "A study of [+ speculation] semantic of "ba" based on corpu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74, (2017)
13. Kim, Jongho. Statements and YuQi Particle in Modern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Vol.14, (1988).
14. Lee, Gigap. "Modality expression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2006).
15. Lee, Hyojeong. "Necessity and Method of Selection of Modal Express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2004).
16. Lee, Seonyeong. "Proposition and Modality". *Korean Semantics* Vol. 43, (2014).
17. Lǚ shuxiang. *Zhongguo Wenfa Yaolǚe*, Shangwu Yin Shuguan, 1980.
18. Lu Jianming. "Interrogative Modal Words in Modern Chinese". *Chinese Language* No.5, (1984).
19. Lyons, J.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1977.
20. Mithun, M. *The languages of Native Northern America*. Cambridge Univ. Press, 1999.
21.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 Press, 1986.
22. Palmer, F. R. *Mood and Modality*(2nd ed). Cambridge Univ. Press, 2001.
23. Palmer, F. R.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2nd ed). Longman, 1979.
24. Park, Junggu. *Chinese pragmatics*, Shin Sung Publishing Co., 2005.
25. Park, Jaeye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Modes and the Questions". *Language Studies* Vol.41, (2005).
26. Park, Junggu. "The Function, System and Teaching of Chinese Modal Particle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35, (2002).
27. Peng Lizhen. *A Study of Modality in Modern Chinese*. China Social

- Sciences Press, 2007.
28. Qu chengxi & Li bin. “On the Sentence Patterns of Sentence Patterns in Modern Chinese and Their English Translation”. *Foreign language learning* Vol.6, (2004).
 29. Saeed, J.I. *Semantics*(2nd ed). Blackwell, 2003.
 30. Wang Li. *WangLi Wenji*(Vol.1). Shangdong Jiaoyu Chubanshe. 1984.
 31. Wen Suolin. *A Study of Pragmatics in Modern Chinese*. Beijing Library Press, 2001.
 32. Xu jingning, “Modal Explanation of Modal Particle ‘ba’”. *Journal of Peking University* Vol.3, (2003).
 33. Zhao Yua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Commercial Press, 1979.
 34. Zhou Chunli & Shi dingxu. “mood, modality and sentence function type”.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4, (2011).
 35. Zhou shihong. “‘ba’ the meaning of the functio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2, (2009).
 36. Zhou shihong & Cen Yunqiang. “On the Modal Meaning of Modal Particle ‘ba’”. *Beifang Luncong* Vol.6. 2008.
 37. Zhu Dexi. *Yufa Jiagyi*. Commercial Press, 1982.

< 참고문헌 >

1. 한정숙·정희숙,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문법 제약>, 《언어》 36, 2011.
2. 胡明扬, <语气助词的语气意义>, 《汉语学习》 第6期, 1988.
3.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008.
4. 임홍빈, 《국어문법의 심층 III: 어휘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1998.
5.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탐출판사, 1985.
 6. 장경희, 〈한·중 양태 의미 실현 양상의 대조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5권, 2015.
 7. 정명숙, 〈현대중국어의 어기유형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39집, 2008.
 8. 진준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吧’의 [+주측] 의미 再考察〉, 《中國語文學》 第74輯, 2017.
 9. 김종호, 〈現代中國語의 敘述文과 語氣助詞〉, 《언어와 언어학》 14, 1988.
 10. 이기갑,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 《답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11. 이선영, 〈명제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43집, 2014.
 12. 이효정, 〈양태 표현 선정의 필요성 및 방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3. 吕树湘, 《中国语法要略》, 商务印书馆, 1980.
 14. 陆俭明, 〈关于现代汉语里的疑问语气词〉, 《中国语文》 第5期, 1984.
 15. 박재연, 〈인식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41, 2005.
 16. 朴正九, 〈汉语语气助词的功能、体系及其教学〉, 《中语中文学》 第35辑, 2002.
 17. 박정구, 《중국어회용론》, 신성출판사, 2005.
 18. 彭利贞, 《现代汉语情态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19. 屈承熹·李彬, 〈论现代汉语句末情态虚词及其英译〉, 《外语学习》 第6期, 2004.
 20. 王力, 《王力文集》 第一卷, 山東教育出版社, 1984.
 21. 温锁林, 《现代汉语语用平面研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22. 徐晶凝, 〈语气助词“吧”的情态解释〉, 《北京大学学报》 第4期, 2003.

23. 赵春利、石定栩, 〈语气、情态与句子功能类型〉, 《外语教学与研究》第4期, 2011.
24. 赵元任, 《汉语口语语法》, 商务印书馆, 1979.
25. 周士宏, 〈“吧”的意义、功能再议〉,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2009.
26. 周士宏、岑运强, 〈试论语气词“吧”的情态意义〉, 《北方论丛》第6期, 2008.
27.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

< Abstract >

This paper considers ba in Chinese to represent modality and discusses it. A summary of these discussions is as follows.

In Chinese, ‘YuQi’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a reactionary response to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listener in the context of the speech act, using the whole meaning of the sentence as the acting area. In other words, the term must be understood as a sentence pattern about the whole intention and meaning of sentence utterance, and modality should be understood as the level of the speaker's belief in the sentence proposition or the speaker's judgment or attitude about the real status of the proposition will be.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sentence is composed of ‘[S = [P + M] × Y]’ (S: sentence, P: proposition, M: modality, Y: YuQi).

‘ba’ is a modality that expresses the subjective attitude of the speaker such as [speculation], [push], [recommendation], [consent], [prompt], [suggestion], [action request].

‘ba’, which has the meaning function of ‘[Confirmation [guess]]’, belongs to ‘epistemic modality and can be defined as’ [action request], [enforcement],

[prompt], [recommendation] and have a meaning function such as 'deontic modality' belongs.

Key Words : 서법(mood), 양태(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양태조사(modal particle)